

1. 디지털 뉴딜 정책과 ODA와의 (잠재적) 연계성에 대해서 설명해주신 부분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개발협력분야에서는 (기술결정론에 기반하여) 인프라 투입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개발목표를 달성하는 데에 한정적 효과만을 낳는다고 오래전부터 이야기되어 왔습니다. 반면, 디지털 뉴딜 정책에서는 인프라 개선효과에 주목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디지털 뉴딜 정책의 맥락에서 우리나라의 ODA 정책을 설계할 때, 개발협력 논의의 흐름을 적절히 반영하기 위해 꼭 고려되어야 할 측면에는 무엇이 있을지요.

2. (Heeks의 분석에 따르면) 1990년대~2000년대 중후반 ICT4D 1.0하에서는 기술과 관련하여 '도입의 준비정도', '가용성'에 대한 정책적 논의가 주를 이루었고, 2000년대 중후반 이후 '활용'과 그에 따른 '사회적 영향'으로 논의의 주제가 점차 옮겨져 왔습니다. 발표하신 내용에 따라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ICT4D/ICTD의 초점이 데이터와 데이터 거버넌스로 맞춰질 것으로 예상할 때 (서로 다른 데이터 및 기술, 주체 간의) '연결성'에 대한 논의가 보다 더 활발히 진행될 것 같습니다. 향후 ICT4D 주요 논의 방향에 관해 교수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3. 우리나라의 개발협력정책이 '데이터 거버넌스, 사용자중심적 기술설계, 디지털 생태계'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이와 대비해 우리나라 주요 협력국의 상황(준비정도, 당면 과제, 국가발전 전략과 관련된 고려 등)은 어떠한 것으로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 이를 바탕으로 ODA 정책 수립 시에 특히 고려해야 할 측면은 무엇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4.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개발협력이 데이터에 초점이 맞춰짐에 따라 SDG와 비교하여 post-2030 개발 의제에 추가 혹은 반영되어야 할 내용은 무엇이며, 개발협력 효과성 평가는 어떠한 방식으로 변화해야 할지에 대해 고견 부탁드립니다.

5. '데이터 거버넌스, 사용자중심적 기술설계, 디지털 생태계'에 초점을 맞춘 개발협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ICT4D 주요 행위자들의 역할은 어떻게 재정립되어야 할지요.